

양금덕 할머니 “대통령 옷 벗어라”... ‘3자변제’ 비판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출석 “굶어 죽어도 그런 돈 안 받아” 日사죄·배상 촉구결의안 처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13일 윤석열정부의 ‘제3자 대위변제 방식’에 대해 “굶어 죽어도 그런 돈 안 받습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양금덕 할머니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 정부가 뭐하는 정부인가”라며 “대통령 옷 벗어라”고 말했다. 솔직히 말해...”라며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해법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양 할머니는 “자기들은 뭐하는 양반들이오. 우리나라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누가, 솔직히 난 그게 안타깝다”고 정부 인식을 비판했다.

양 할머니는 강제동원의 고통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어떻게든 좀 빨리 사립답게 살게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분해서 못살겠소”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날 외통위 회의는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일본 순방을 앞둔 ‘흡집내기’라고 반발하며, 김태호 위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스

원장을 비롯해 소속 의원 전원이 불참, 야당 간사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재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중요한 국가 대사를 앞두고 정부여당이 출석하지 않고

국회를 포기했다는 것에 대해 대단히 심각한 유감”이라며 “한국 정부 제안이 국회를 열 수 없을 정도로 국민과 야당 신뢰를 받지 못하는 취약한 안이란 걸 노출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천일, 반일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왜 이렇게 무능한지 왜 이렇게까지 국민을 무시해야 하는지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야당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반

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결의안은 김영주 국회부의장, 박홍근 원내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 35명이 이름을 올렸다.

결의안은 ‘제3자 병존적 채무 인수’ (제3자 대위변제) 방식의 정부 해법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삼권분립과 사법부권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또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과거 식민지배 당시 이뤄진 강제동원의 불법성과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인권유린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전범 기업의 사과와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결의했다.

한편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자 신대순해 배상 소송을 맡은 법률 대리인 측은 이날 소송 원고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강제동원 위자료 채권과 관련해 “의뢰인인 두 할머니의 의사에 반한 변제는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전달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與 사무총장 ‘친윤’ 이철규... 최고위원 ‘비윤’ 강대식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철규(사진) 사무총장과 강대식 지명직 최고위원 등 신임 주요 당직자 인선을 단행했다.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초선인 강대식 의원이 임명됐다. 대구동구을이 지역구인 강 의원은 유승민계로 알려졌고, 당 조직부총장을 지냈다.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까운 인사를 등용함으로써 통합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무총장은 친윤계 재선 이철규 의원이 임명됐다. 사무총장은 당의 살림을 책임지는 주요 직책으로, 내년 총선의 공천 실무를 맡는 자리다.

이 사무총장은 친윤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공부모임 ‘국민공감’의 간사를 맡고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광주 의원들 “김재원 5·18정신 헌법 수록 반대” 사죄 촉구

“與 지도부 분명한 입장 밝혀야” 金 “개인 의견... 개헌은 불가능”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13일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데 대해 “여당 지도부의 역사 인식이 처참하다”면서 즉각적인 사죄를 촉구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재원 수석최고위원이 전광훈 목사 예배에 참석해 5·18 정신의 헌법 수록에 반대한다며 막말을 뱉었다”면서 “1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와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 있다고 한 약속과 전면 배치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정부여당의 비뚤어진 역사 인식이 하루가 멀다하고 밀전을 드러내고 있다”며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의 생각인

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모두의 생각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여당 지도부의 입장을 물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 본인의 진심이 무엇인지 밝혀라”며 “김재원 최고위원이 혼자 오버한 것인지, 선거를 앞둔 ‘전라도 립서비스’가 맞는지, 진정 5·18 헌법수룩에 동의하고,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허무맹랑한 변명으로 일관한 김 최고위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나”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진정 5·18정신에 동의하고, 영령을 존중한다면 사죄해야 한다.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며 “반복되는 폄훼와 훼손, 거짓말이 지긋지긋하다”고 꼬집었다.

발언 논란이 커지자,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제 개인 의견”이라며 “헌재 개헌 움직임이 없지 않나. 바로 개헌할 듯 이야기하면서 말하니까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립서비스’ 표현에 대해선 “그 자리에서 그냥 덕담을 한 것”이라고 했고, “조상묘를 판다”는 발언은 “선거운동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남 영광군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관하는 주일예배에 참석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수록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전 목사는 “우리가 김기현 장로를 믿었다. 근데 우리에게 찬물을 던졌다.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고 하는데 전라도 표가 나올 줄 아느냐”고 말하자, 김 최고위원은 “그건 불가능하다. 저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윤재갑 “16일 민주당 해양수산특위 공식 출범”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사진)은 “오는 16일 국회의원과 제2소회의실에서 당 해양수산특위가 공식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등 해양수산 분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당원들로 꾸려졌다.

앞으로 △수산, 관광, 해운, 항만, 조선 등 5대 해양수산업 발전 방향 제시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 활력 제고 등 해양수산업 경쟁력 강화,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활동들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이용빈 “광주의료원 타당성제조사 통과 촉구”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갑·사진)은 13일 국회에서 광주·울산 공공의료원 타당성제조사 통과 촉구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광주·울산 타당성제조사 통과 및 공공의료원 정부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공의료 인프라 확충' 국정과제 이행 △공공의료원 사업비에 정부 지원 대폭 강화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 의료 현장 때 병상 부족

문제를 겪은 만큼, 공공의료원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편 대전과 달리 예타면제를 받지 못한 광주와 울산은 타당성제조사를 받고 있다.

울산은 지난달 회의를 마쳤고, 광주는 3월중 마지막 회의를 남겨둔 상태다. 기재부는 오는 4월 재정사업평가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16일 의원총회... 선거제 개편 등 당내 의견 수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안 등과 관련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의총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선거법 개편안을 토대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정개특위는 17일까지 두 개 정도로 안

을 추려 결의안을 도출해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계획이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는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정개특위는 △현행 소선거구+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대동복합형 중대선거구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4개 안 중 2개안을 정해 결의안을 내기로 했다.

김진표 의장은 정개특위가 복수 안을 내고 23일 전원이 구성되면, 27일부터 2주간 5~6차례 전원위를 연 뒤 4월28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고민정 “이재명 체제 총선 어려워... 판단할 시기 올 것”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이재명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르기 어려울 수 있다’는 당내 일각의 주장에 대해, “초가를 정도에 판단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

현의 정치쇼’에 출연 “이 대표를 지키자는 의견과 이 대표로는 선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지금 그것을 판단할 시기는 아니라고 본다. 아직 총선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고 변수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

기”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판단 시기에 대해서 “초가를 정도 되면 총선을 몇 달 앞으로 남겨 두고 있기 때문에 총선 전략을 무엇으로 짜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의 시기를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김선욱 기자